

한국과 베트남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쟁 담론 연구*

정 찬 영**

차 례

- | | |
|------------------------------|---------------------------|
| 1. 베트남전쟁 문학과 기억의 충돌 | 3. 한국 소설 속의 베트남전쟁 반영 |
| 2. 베트남 소설 속의 베트남전쟁 반
영 양상 | 양상
4. 베트남전쟁 소설의 특성과 의의 |

국문초록

본고는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한 베트남 소설과 한국소설을 주제별 양상에 따라 세 분류로 살펴보았다. 첫째는 제국주의적 속성을 띠는 자본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거대 담론의 관점에서 주로 재현적 서사를 통해 전쟁의 본질과 투쟁을 그리는 소설들이다. 둘째는 전쟁의 고엽제의 피해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개인을 현재와 과거의 교체서술이나 회상을 통해 드러나는 소설들이다. 셋째는 베트남 전쟁의 비극성과 상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현재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는 소설들이다.

* 이 논문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32-A00136)

** 동서대 교수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과 응웬반봉의 『하얀 아오자이』, 그리고 찬딘 반의 『불멸의 불꽃으로 살아』는 베트남전쟁을 미제국주의에 대항한 민족해방투쟁의 관점에서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따라서 소설은 시간 순서대로 자본주의적 침략의 실체를 보여주거나 투쟁의 모습이 여과없이 재현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무기의 그늘』이 미국적 자본주의의 폭력성이 베트남 전쟁의 본질임을 드러내고 있고 『하얀 아오자이』와 『불멸의 불꽃으로 살아』가 민족해방투쟁의 선명성과 숭고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재현의 서사에 충실하면서 제국주의의 본질을 폭로하고 민족과 민중의식을 고취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안정효의 『하얀전쟁』과 바오닌의 『전쟁의 슬픔』은 살아남은 자의 소명의식은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고 기록해 전하는 일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소설이다. 이는 자연스레 과거와 현재를 병치하는 교체 서술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베트남전쟁에 대한 현재의 인식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곧 두 소설은 인물의 트라우마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징후를 통해 추적하면서 여전히 하위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아픔이 드러나도록 하여 전쟁의 비극성과 현재성을 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대환의 『슬로우 불릿』 역시 베트남전쟁 종전 이후에도 남아있는 고엽제피해자와 다음 세대에까지 피해가 전승되는 실상을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전쟁의 아픔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증언하고 있다. 쯔엉 투 후웅 『제목을 붙이지 못한 소설』은 이념 대립에 의한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한 남·북베트남 민중들을 기억하면서 살아남은 하위주체들의 아픔이 여전함을 징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방현석의 「랍스타를 먹는시간」과 오현미의 『붉은 아오자이』, 반례의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은 각기의 방식으로 베트남전쟁의 상처를 보듬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있다. 「랍스타를 먹는시간」은 한국이 베트남을 이해하는 방식의 반성적 성찰과 거대자본주의 현실에 대항하는

한·베트남 민중 연대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고, 『붉은 아오자이』는 두 국가가 중시하는 가족주의를 통해 라이 파이한 문제를 보듬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내세우고 있고,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은 베트남의 전통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인간애만이 전쟁의 질곡과 상처를 극복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전쟁 소재 한·베트남 소설의 의의는 1)공적담론이 제공할 수 없는 전쟁의 실체와 비극성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는 점, 2)베트남전쟁의 상처와 극복노력이 현재진행의 역사임을 모임으로써 담론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3)소통의 진정성을 마련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4)전지구적 자본주의라는 동일한 경험체에서 국민문학적 특성을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주제어 : 베트남전쟁, 공적담론, 민족주의, 제국주의, 하위주체, 재현적 서사, 교체 서술

1. 베트남전쟁 문학과 기억의 충돌

한국사회에서 베트남전쟁이 끼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물론 지방 권력이 존재하고 혁명세력이 꾸준히 성장했으며 통일 민족주의가 강했고 중앙정부의 사회규제 능력이 느슨했던 베트남과 강력한 중앙집권과 반공이데올로기,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지배가 가능했던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그럼에도 세계2차대전 종전 후 분단, 혁명, 전쟁이라는 현대사의 질곡을 응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베트남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모순의 연장선에서 베트남전쟁을 통해 10여년의 잘못된 만남과 이를 어정쩡하게 사과하고 국교정상화와 21세기의 협력관계를 구축해가

고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전쟁 담론에 관한 연구는 그 시효성이 여전하다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접촉과 교류는 없었지만 유교문화권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개화기 때 현재의 『월남망국사』¹⁾를 통해 동병상련을 느끼며 타산지석으로 삼고자했던 베트남은 간헐적 만남이 있다²⁾ 현대에 이르러 베트남전쟁을 통해 불편한 만남을 맞게 된다. 그럼에도, 특히 베트남전쟁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여러 정치·사회적 담론들이 얹혀 있어 아직 그 평가가 온당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자이자 타자였던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베트남작가의 작품의 경우 반수 이상이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것이라 하는데³⁾ 국내에 번역 소개된 것은 수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증거한다.

한국과의 특수한 관계에 놓여있는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현재에 가져다 놓아야하는 당위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과 베트남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쟁 담론 연구의 일차적 의의는 여기에 있다.

베트남전쟁(1065-1975)⁴⁾에 관한 한국 공적담론은 도미노이론에 근거

1) 이 책은 중국 근대 지식인 양계초가 월남의 소남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1905년 상해에서 발간하였다. 주로 프랑스의 월남침략을 고발하고 아시아에 대한 열강의 위협을 비판하고 있는 저술로 <황성신문>에 일부 연재되다가 1906년 계몽운동가 현채(玄采:1886~1925)에 의해 국한문혼용으로 번역된 바 있고, 1907년 주시경과 이상익에 의해 국문으로 번역되어 널리 읽혔다 한다. 최근에 재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양계초 편저 인명철 외 옮김,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2) 전경수에 의하면 베트남의 한국식당에서 여행사의 젊은이인 김과장을 만났는데 그의 어머니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로 동남아에 왔다가 이곳에 남아 베트남인과 결혼했다 한다. 전경수, 『베트남일기』, 통나무, 1993. 117쪽.

3) 베트남 소설의 제 경향은 호티롱안, 「베트남전쟁과 베트남인의 기억」(김귀옥 외, 『동아시아의 전쟁과 사회』, 한울, 2009) 참조. 호티롱안은 베트남 소설을 1930-1945, 1945-1975, 도이머이 이후로 시기구분하고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국내에 번역된 작품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베트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이 수긍되는 대목이다.

한 미국의 참전 권유 논리에 동조하여 베트남 파병이 경제개발과 안보 강화와 같은 국가정책과 군사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현실적 선택이었음이 강조된다. 그리고 종전 후의 담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시 한국의 공적 담론은 남베트남 패망의 원인을 국민들의 반공의식의 부재에서 찾고 나라 잃은 백성들에 대한 측은지심과 경멸의 의미를 담아 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선전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역시 다르지 않다. 제국주의에 대항한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명분은 베트남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통일 민족국가를 수립이라는 공적담론에 충실했다. 하지만 예견대 1968년의 구정대공세에서 전사한 민족해방전선 게릴라들은 모두 3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가장 치열했던 1만여 명이 전사한 후에 전투에서 미군 사망자는 단 150명이 전사했다는 사실에서 이 전투의 무모함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또한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으로 마침내 혁명에 승리한 통일베트남이 직면한 과제가 군사주의적 혁명을 건설적 혁명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 북베트남 군사엘리트들은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군사주의적으로 통치하였으며, 캄보디아와의 전쟁을 일으킨 점 역시 오점으로 남겨진 문제이다. 그리고 1976년에 시작되었던 보트피플(boat people)⁵⁾은 초기에는 정치적 이유

4) 명칭에 관해서는 베트남전쟁·제2차 베트남전쟁·제2차 인도차이나전쟁 등으로 불리거나, 미국의 베트남 침략전쟁, 미국의 제국주의전쟁, 그리고 신(新)식민지주의 전쟁에 대한 베트남민족의 반미구국전쟁·항미구국전쟁이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베트남전쟁은 미국과의 전면적 전쟁시기인 1965년에서 1975년까지의 2차 베트남전쟁이며, 이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인 ‘베트남전쟁’으로 부르기로 한다.

5) 보트피플은 베트남전쟁 종전 후 통일베트남에서 살 수 없어 자유를 찾아 해로(海路)를 통한 탈출을 시도한 남베트남인들을 일컫는 말이다. 초기에는 개조학습이라는 이른바 강도 높은 사상교육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이후 경제적 이유로 탈출을 감행한 사람들이 많았다 한다. 이청준의 소설 「시간의 문」(1982)에서는 월남전 취재를 했던 유종열의 시선으로 구조를 거절당한 보트피플들의 상황이 비극적으로 그려져 있다. 실제 한국인 중에는 이들을 구조한 이도 있었으며 이들은 부산과 인천에 있는 적십자 난민보호소에서 1년 반 정도를 생활하다 제3국으로 보내지기도 하였다. 늦었지만 이런 사실은 KBS스페셜<어떤 인연-전선장

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순전히 경제적 이유로 감행되었다는⁶⁾ 점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여전히 남아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문제, 약 1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로 치른 5천여 명의 사상자와 1만여 명의 부상자 그리고 고엽제 피해자라는 자본의 논리로 환산할 수 없는 인명 피해에 대한 문제 등과 한·베트남수교이후 알려진 라이 따이한 문제, 베트남전쟁 실종자 문제와 북한군의 베트남전 참전 의혹⁷⁾ 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도 더욱 극심해서 여전히 200만을 헤아리는 고엽제 환자의 고통은 남아있으며⁸⁾, 전쟁의 후유증과 사회적·경제적 고통 등 아직 미해결의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⁹⁾ 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쟁 당시 실제 17도선인 휴전선 이남전선에서 대미항전은 인민해방전선 소속의 인민해방군이 주도했음에도 전쟁이 끝난 후 결과는 모든 국가적 주도권을 북베트남출신이 장악하고 만 문제 역시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하위주체¹⁰⁾였던 파월 한국군과 베트남인들의 죽음과 공포, 트라우마로 남아

과 96인의 난민들>(2009.10.11)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6) 전경수, 앞의 책, 200쪽.

7) 한국일보. 2000.3.27. 북한이 중국을 통해 베트남을 지원한 예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북한군이 북베트남에 파병되었다는 기록이나 증거는 아직 없다 한다.(박태균,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역사비평80, 2007 가을) 또한 한국군 포로 문제와 관련 1973년 철군 당시 7명의 실종자만을 보도한 것이 모두이다. 그런데 박정환은 1967년 태권도교관으로 베트남에 파견되었다가 1968년 1월 31일 포로로 잡혀 3개월간 고투하다가 북한으로 강송되던 중 탈출하였으나 캄보디아 민병대에 붙들려 1년 4개월을 복역하다 한 월남인 장교와 호주대사관의 도움으로 생환한 인물이다. 그의 이 기간에 대한 증언은 수기집 『느시』1.2(문예당, 2000)에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그리고 메콩델타에 있는 군사박물관(Bao Tang Quan Doi)에는 한국군 포로들에 관한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 그 제목은 “남조선군인들의 얼굴”이라 한다.(전경수, 앞의 책, 229-230쪽) 박정환의 존재는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첫째 한국군 포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고, 둘째 북한의 직간접적 베트남전 참전이다.

8) 방현석, 『하노이에 별이 뜨다』, 해냄, 2002. 97쪽.

9) 호티롱안, 앞의 글, 275쪽.

10) 하위주체로 번역한 subaltern은 하위(sub)와 타자(altern)가 결합된 조어로 1980

있거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시달리는 사람들, 세대를 이어 남겨진 고엽제 피해자의 고통 등은 여전히 그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과제라는 점에서 베트남 전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은 필수적인 것이며 베트남전쟁문학에 대한 연구 역시 현재진행형의 담론이 된다.

베트남전쟁에 관한 형상화는 과병이 이루어졌던 1960년대 중반부터 수기·보고문학, 유행가, 영화, 만화, 그리고 시나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소설 문학 역시 1970년대 초반부터 참전 경험 작가 중심의 작품에서 점차 미체험세대의 창작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기억과 반성을 전제해야만 하는 베트남전쟁문학은 질곡의 한국 현대사와 분단문제에 대한 일정한 시각을 제공할 것이며, 고엽제 문제등과 같은 미해결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다는 점, 그리고 한·베트남 수교 이후 미래지향적 관계형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베트남 문학에 대한 관심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먼저 한국인이 갖는 베트남에 대한 역사적 기억과 선입견 속에 배제된 베트남인의 전쟁경험과 기억이나 관심, 이해를 촉구하는 일이다.¹¹⁾ 베트남에서 베트남전쟁 소설은 기억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며, 이를 후대에 전하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베트남전쟁기나 종전 이후의 문학작품 다수는 전쟁관련성이 짙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기억은 집합기억이며 투

년대 인도 역사학에 등장한 서발턴연구집단이 내세우는 주된 용어이자 관점이다. 이들은 식민지 근대와 여기에 대항하는 대항담론으로서의 민족주의가 엘리트주의라는 점에서는 매한가지였다고 주장하고 배제된 하위계층에 주목하여 근대역사학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한다.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지배세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베트남전쟁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이를 통해 자본과 민족의 그늘아래 묻혀있는 비극적 실체를 들추어내 공론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쓴 소설의 인물들 역시 민중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와 주체로 내세우고자 이 용어를 사용한다. 김택현, 『서발턴과 역사학 비판』, 박종철출판사, 2003. 16-7쪽.

11) 호티롱안, 앞의 글, 276쪽 참조.

쟁이다. 이를 소통과 연대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베트남전쟁을 연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베트남 전쟁 소설에 대한 연구는 베트남전쟁문학 일반론과 작품론이 주조를 이루다 최근에 베트남 소설과의 비교연구가 소장학자나 베트남 유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¹²⁾ 본고는 이들 논의를 바탕으로 베트남 소설과 한국소설을 주제별 양상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국주의적 속성을 띠는 자본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거대 담론의 관점에서 주로 재현적 서사를 통해 전쟁의 본질과 투쟁을 그리는 소설을 살피고 다음은 전쟁의 고엽제의

12) 베트남전쟁소설을 연구한 주요한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호웅, 「베트남 민족해방투쟁의 안과 밖-무기의 그늘론」, 외국문학22, 1989.

송승철, 「베트남전쟁 소설론: 용병의 교훈」, 창작과비평80, 1993.

이 경, 「전쟁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하얀전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14, 1993.

서은주, 「한국소설 속의 월남전-집단광기의 역사, 그 고통의 담론」, 역사비평30, 1995. 가을.

최원식, 「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쟁」,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창작과비평사, 1997.

정종현, 「베트남전 소설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1997.

김종윤, 「전쟁문학에 나타나는 전장체험 연구」, 육사논문집54, 육군사관학교, 1998.

정찬영, 「베트남 전쟁의 소설적 공론화-『하얀전쟁』을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39, 2002.

김해련, 「황석영의 베트남전쟁소설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02.

호티롱안, 「‘하얀전쟁’과 ‘전쟁의 슬픔’ 비교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2002.

고명철, 「베트남전쟁소설의 형상화에 대한 문제」, 현대소설연구19, 2003.

이 훈, 「베트남 작가의 베트남전쟁소설에 대하여」, 한국베트남학회6, 2005.

뉘옌 티 타오, 「한·베트남 전쟁소설에 나타난 인물형상 비교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6.

지현희, 「한-베트남전쟁 소설 비교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07.

정찬영, 「사실의 재현과 기억, 연대를 위한 조건-『무기의 그늘』론」, 현대문학이론연구35, 2008.

장윤미, 「월남전을 소재로 한 한국 소설의 고찰」, 동남아시아연구19, 2009.

피해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개인을 현재와 과거의 교체서술이나 회상을 통해 드러나는 소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비극성과 상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현재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는 소설로 나눌 것이다.

이를 위해 선택된 베트남 소설은 현재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다섯 편의 장편을 모두로 하고, 한국소설은 주제에 맞는 대표적 작품을 선정했다. 베트남 소설은 응웬반봉의 『하얀 아오자이』, 찬딘반의 『불멸의 불꽃으로 살아』, 바오닌의 『전쟁의 슬픔』, 쯔엉 투 후옹 『제목을 붙이지 못한 소설』, 반래의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 등이고 한국소설은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안정효의 『하얀전쟁』, 이대환의 『슬로우 불릿』, 방현석의 『랍스타를 먹는시간』과 오현미의 『붉은 아오자이』 등이다.

베트남 속담에 “AN CAY NAO RAO CAY AY”라는 말은 나무에서 열매를 다 먹었으면, 그 나무의 뿌리 주변에 거름을 뿌려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사회적 교환관계에 있어 균형호혜성(均衡互惠性)을 의미한다고 한다.¹³⁾ 진정한 한국과 베트남의 동반자적 관계는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베트남 전쟁문학을 살피는 다음 이유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전쟁으로 연결되었던 과거를 진정성 있게 극복하고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평화라는 대의아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베트남 소설 속의 베트남전쟁 반영 양상

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역사에 대한 기억일 뿐 실제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 특히 베트남과 관련한 우리의 인식은 과거 반공교육과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등의 대중가요 또는 헐리웃 베트남 영화에 기인한 것이

13) 전경수, 앞의 책, 136-7쪽.

거나 도이머이 이후의 개발 베트남은 가난한 국가라는 선입견인 경우가 많다. 중요한 문제는 이런 인식이 실제 역사적 사실과 연결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만 ‘파편화된 기억’을 갖고 접근하는 현상이 적잖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바른 인식을 위해 전쟁의 아픔을 처절하게 경험한 당사자들의 경험적 발언을 경청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나아가 베트남전쟁을 이해하려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베트남인들의 전쟁경험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는 소설을 살피는 일은 진실의 실체에 접근하는 노력의 소산일이며, 이를 통해 그들의 육성을 들으려 하는 것은 인식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자 우리의 성찰의 깊이를 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베트남전쟁을 증거하는 소설들은 한결같이 비록 고통스러운 기억을 결코 잊지 않으려 한다. 아니 간직하려한다.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고 말하고 전하는 것은 이미 그 아픔을 이겨내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리라. 베트남 전쟁은 무엇보다 ‘베트남의 전쟁’이다. 그 육체적, 정신적인 후유증은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큰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고 다친 것은 베트남 사람이며, 숲과 도시와 마을이 초토화된 곳은 베트남 땅이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베트남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전쟁이 끝난 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다. 베트남 전쟁을 다룬 베트남 소설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여기서는 베트남전쟁을 다룬 소설 다섯 편을 그 주제 구현양상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피고자 한다.

2.1 혁명적 낭만주의와 민족해방국가 실현

『하얀 아오자이』¹⁴⁾는 초기 베트남혁명문학의 선봉장 응웬반봉의 대표

14) 배양수는 작가가 생전에 응웬티저우 여사가 실제 모델이라고 생전에 밝히고 있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쩌우여사를 만나 1969년 남부이 해방구에서 작가인 응웬반봉을 만나 자신의 일생을 전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응웬반봉(배양수 옮

작으로 실존인물인 응웬티찌우라는 여성을 모델로 한 소설이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은 1950년 중반부터 1960년 중반까지의 사이공의 젊은 학생들이 점차 민족적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하고 투쟁해 나가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 시기는 1954년 제네바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나뉘어 있던 시기였다. 그리고 1956년 예정되었던 남북베트남총선은 단독선거로 귀결되고 분단은 고착되었으며 결국 전쟁으로 폭발하고 말았던 시기였다.¹⁵⁾

소설은 주인공 프영의 시선으로 그려진다. 시골 비엔호아에서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프영은 삼촌의 도움으로 사이공에서 학교에 다니며 선생님이거나 간호사가 되고 싶은 소박한 꿈을 키워가던 소녀였다. 그녀는 타잉과 홍란 호앙 등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아가던 중 소풍에서 ‘보티사우 열사’에 관한 연극을 하게 된다. 보티사우는 14살에 프랑스 관리에게 폭탄을 던져 3명을 죽이고 이후 프랑스 고위관리를 암살하기도 한 여성으로 16세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다 총살형을 당한 베트남 여성열사이다. 프영은 사우역을 맡아 항전과 가족의 삶, 사회혼란 등을 생각하는 등 내적갈등을 겪지만 그녀와 동일시되는 경험을 하면서 점차 성숙한 투사의 모습으로 변모해 간다. 소설은 학교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정, 그리고 혁명투사로서의 변모과정을 섬세하게 그려 보이고 있다.

학내투쟁의 구체적 모습은 1월 9일 학생의 날에 학생운동지도자로 시위 중 총에 맞아 희생된 쩐반언 열사를 추모하는 기념식을 거행하는 것과 등록금 인하투쟁 등을 하는 것으로 형상화되어있다. 프영이 다니던 학교의 분위기는 억압적이었다. 정치애기와 공산당선전을 해서는 안되

김), 『하얀 아오자이』, 동녘, 2006. 6쪽 참조. 베트남전쟁기인 1973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1986년 『사이공의 흰옷』(친구, 1986)으로 중역된 바 있다.

15) 이 과정은 38도선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이 나뉘고 남북한 총선실시가 무산되고 남한에서만 단독선거로 귀결되고 중국에는 한국전쟁으로 치달았던 1945년과 1948년, 1950년의 한반도와 놀라우리만큼 유사하다.

며, 디엔비엔푸전투¹⁶⁾ 얘기를 해주던 선생님이 체포되기도 하는 등 학교내에 프락치가 상주하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기도 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특히 미중앙정보국(CIA)의 지원을 받은 <쟁반신문>이 학생운동은 공산당이 부추긴 것이며 ‘시민들은 국가 정의와 질서의 파괴자’라고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이루어낸 등록금 투쟁의 성공은 이후 교육개혁과 학생강제군사교육폐지, 교사의 정치·사상검증강요 폐지 등의 여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소설은 프영이 호앙을 주축으로 친구들과 혁명의 감정을 공유하는 그룹을 만들어 활동을 하는 중 미국 고문 살해, 미군사고문단 차량 폭파, 미문화원 방화 등 반미 항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친미주의자 내부에서 비롯한 쿠데타와 학생강제집집반대투쟁의 모습을 전하기도 한다.

그리고 프영의 가족은 사공이었던 아버지는 항전에 참여하였다가 이후 병을 얻어 죽었으며 또 삼촌과 숙모는 전투에서 죽었는데 특히 숙모는 강간 뒤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 호앙과 친구들이 가족이야기 등이 삽입되기도 하는데 이는 프랑스와 미국으로 이어지는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보이는 장치이다. 더불어 사이공에서 경험한 빈부 격차와 사회적 모순이 화교가 운영하던 사이공 찢린 지역의 대규모 도박·위락시설인 대세계와 고층빌딩, 붐비는 시내, 고급 빌라 등과 다리 및 하수구에 사는 사람들과 비를 피하려 들어간 빌라 주차장에서도 쫓겨나는 모습 등의 대비를 통해 선명히 부각되는 것은 그들의 항전이 필연적임을 보여주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학내투쟁의 과정에서 마침내 프영은 체포되어 회유와 고문에 시달리게 되며 전향을 강요받지만 극복하고 감옥에서 공산당에 가입하는 등 혁명전사로 거듭나 4년 후 출소하게 된다. 감옥에서 그녀가 머리핀으로 눌러쓴 글 “지금은 비록 고통스러워도 하얀 아오자이는 영원히 퇴색하

16) 1954년 베트남군이 프랑스군을 궤멸시킨 전투

지 않으리”(219쪽)처럼 소설은 프엉이 끝다오 섬에 수감된 연인 호앙을 생각하면서 하얀 아오자이로 상징되는 베트남민족국가 수립이라는 순수한 항전을 준비하는 낙관적 전망으로 종결된다.

『하얀 아오자이』에서 주인공 프엉으로 전형화된 베트남의 학생들은 개인의 삶과 꿈을 유보하면서 통일민족국가 수립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소명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가난하지만 소박한 꿈을 갖고 있던 평범한 여학생이었던 주인공 ‘프엉’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공산당원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혹독한 고문에도 동료들을 지키는 투사의 한 전형으로 보여주는 혁명적 낭만주의 소설로 ‘하얀 아오자이’로 상징되는 순수한 베트남 민족주의의 표상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한 베트남 혁명전사의 삶과 죽음’이라는 부제가 붙은 『불멸의 불꽃으로 살아』¹⁷⁾는 1964년 10월 15일 사이공정권이 총살한 청년전기노동자 우옌 반 초이의 삶을 그의 부인 판 티 쿠옌이 회고하고 이를 남베트남작가인 찬 딘 반이 옮겨 세상에 내보낸 실화이자 실명소설이다. 우옌 반 초이는 당시 미 국방장관인 맥나라마¹⁸⁾가 통과할 예정이었던 다리를 폭파하려다 실패하고 체포된 후 혁명적인 수감생활을 통해 베트남인들에게 감동을 준 투사이다.

초이는 어린 시절 저항전사였던 아버지가 프랑스군에 체포되어 가난하게 지내다 15세가 되던 해 미군 최대기지가 있던 다낭에 있던 형 부부의 슬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가난한 형의 곁을 떠나 사이공으로 간 초이는 인력거 차부생활을 하다 전기공 견습이 되어 인민혁명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1964년 4월 20일에 결혼한 신혼이었던 초이는 북베트

17) 찬딘반, 김민철 옮김, 『불멸의 불꽃으로 살아』, 친구, 1988.

18)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는 패전 25년 뒤인 1995년에 쓴 회고록 『과거를 돌아보며 : 베트남전쟁의 비극과 교훈』에서 14항목으로 자기비판을 행했다 한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영희 임현영 대담, 『대화』, 한길사, 2005. 352-4쪽에 잘 요약되어 있다.

남까지를 손에 넣으려는 미 국방장관 맥나라마에게 타격을 가하고자 하는 계획에 자원하게 된다. 그러나 계획이 실현되기 직전 1964년 5월 9일 밤, 우엔 반 초이는 맥나라마 일행이 통과할 예정이었던 탄손누트 공항과 사이공 사이에 있는 콩리교 근처에서 체포되고 만다.

『불멸의 불꽃으로 살아』는 우엔 반 초이가 체포되고 난 후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부인 쿠엔과의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 옥중에서의 회유와 고문을 이겨낸 불굴의 옥중투쟁, 부인 쿤이 남편의 격려와 동지들의 도움으로 점차 투사로 성장해가는 모습 등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당시 남베트남정부는 우엔 반 초이에게 8월 11일 사형을 언도하고 10월 15일 사형을 집행한다. 이 시기는 이미 8월 5일에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일으켜 북폭을 개시한 직후였으므로 사형집행을 통해 베트남민중의 혁명성을 억압하려던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사형언도 후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베네수엘라 민족해방전선이 미 공군 장교를 납치해 남베트남영웅 우엔 반 초이와 교환석방을 요구한 보도가 10월 9일자 AP 전보를 타고 보도된다. 당시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우엔 반 초이의 처형 연기를 명령한다. 하지만 1964년 10월 14일 미 장교가 석방되자 바로 다음날 초이를 사형시킨다. 이는 교활하고도 신의없는 미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실이다.

결국 우엔 반 초이는 ‘베트남 만세! 호찌민 주석 만세!’를 외치며 형장에서 죽어간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그 아내를 비롯한 베트남의 많은 청년들에게 혁명성을 심어주는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불멸의 불꽃으로 살아』는 이렇듯 한 청년 투사의 전형을 통해 해방전선의 전투성을 고양하고 있는 것이다.

2.2. 전쟁의 폭력성과 공동체를 향한 노력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¹⁹⁾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 작가인

19) 반레, 하재홍 옮김,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 실천문학사, 2002.

반례의 고향 친구인 호앙을 모델로 한 주인공 응웬 꾸앙 빈은 당시 베트남의 순결한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호앙은 집안의 종손이자 독자로서 대를 이어야 할 처지였음에도 반례와 함께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자원입대했다. 상급 기관의 배려로 후방으로 배속되었지만 전선으로 자원했으며 결국 사망했다.

소설은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현적 서사에 집중하지 않고 환상 기법을 취한 것이 특징적이다. 곧 베트남전쟁의 비극성이라는 현실을 다루면서 이는 ‘이승’의 과거와 ‘황천’의 현재를 오가는 교체서술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형식적 새로움을 통해 이 소설은 베트남전쟁의 비극성과 모순을 한 개인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이승은 전쟁중인 현실세계이며, 현재인 황천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미움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공간으로 다루어진다. 이는 반제국주이라는 당위적 전쟁의 명분을 넘어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통일 베트남의 모순을 담보해내려는 서사전략으로 보인다.

미군에 의해 살해된 후 자신의 죽음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 빈은 황천강의 나루꾼인 천년기 할아버지의 설명을 듣고서야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된다. 그는 “인간 세계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영혼이 제 육신을 떠날 때가 있는 법인데, 이곳에서 만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니 참 이상한 일이야”(13쪽)라고 혼잣말을 하는 노인의 말에서 자신의 죽음과 그곳에 온 상사의 죽음을 확인한다. 게다가 빈은 노잣돈(배삯)이 없는 ‘가난한 영혼’이라서 황천을 건너갈 수 없어 환생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노인 천년기는 빈이 과거의 모든 일을 기억해 내면, 자신이 옥황상제에게 도움을 청해 준다고 함으로써 빈의 과거 즉 이승에서의 삶을 섬세하게 기억하도록 한다. 과거의 일을 낱알이 기억하려고 애쓰는 일은 괴로운 일이었지만 기억을 더듬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동안 자신과 처지가 같은 또 하나의 영혼 ‘꾸에지’를 만나 계수나무 숲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된다. 천년기는 칠월 보름날

은 동양의 통례에 따라 망인이 죄를 씻는 날이며, 조금 후 황천의 문이 열릴 때 영혼들이 인간세계로 잠시 돌아갈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것은 천년기가 옥황상제에게 청원서를 냈기 때문으로 정확히 보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엄격한 규율이다.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세월을 보내고 비로소 고향을 찾으니 빈은 기쁨과 설움의 감정이 교차하고, 싱그러운 햇살 반짝이는 아름다운 인간세계의 모습에 정신이 아찔해진다.(280쪽) 빈은 고향에서 대가 끊긴 응웬 꾸앙 가를 외롭게 지켜가는 늙은 할아버지와 득 아주머니를 만나게 된다.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빈의 모습을 예지력이 뛰어난 할아버지는 보게 되며 함께 마을을 둘러보고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된다. 결국 할아버지는 망인을 위한 노잣돈으로 많은 제물을 태워 뱃삿을 마련해주지만 빈은 끝내 황천강을 건너 환생하는 것을 포기하고 계수나무 숲에서 불쌍한 ‘꾸에지’와 단란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한다. 황천강을 건너게 되면 이승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망각의 죽을 먹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승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빈은 “제가 살아온 날들을 잊고, 인간의 삶에서 제가 받았던 그 아름다운 감정들을 모두 잊으면서 얻고 싶지 않다”며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고 영원히 잊지 않을 것”(295쪽)이라고 하면서 소설은 끝을 맺는다.

과거 현실세계의 삶은 먼저 빈이 군인이 되는 과정과 지극히 인간적인 군인들이 모습을 보여준다. 소설은 베트남전쟁이 발발하자 17세의 빈이 자원입대한 사실과 소속된 부대가 해방전선의 원군으로 호치민투트로 남하해서 중남부전선의 각 해방전선부대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마음씨 좋은 소대장 ‘판웃’ 준위와, 편협 가혹하고 시기심이 가득하나 실제 전투상황에서는 강한 책임감을 발휘하는 협동농장 빈민 출신의 부소대장 ‘부이반꿈’상사 등의 인물을 만나 빈은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체득해 간다.

다음으로 소설은 전투의 피비린내와 미군의 가공할 만한 무기의 위력

을 보여주기도 한다. 머릿속에 쌀을 뺏는 듯한 폭발음이 뇌까지 쏘여와 몸을 움츠러들게 만든다거나, 뜨거운 기운이 회오리바람처럼 동굴 속으로 충충이 몰려 들어온다고 표현한 B-52기의 폭탄 투하에 대한 체험적 묘사는 무차별적인 미국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미덕은 혁명적 낙관주의에 기대어 투사의 전형을 창조하려 하지 않고 부정적 인물 및 현실을 보여주려 한 데 있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동료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는 의사 바오같은 기회주의적 인물들의 모습 또한 그려져 있는 것이다. 바오는 아이를 가진 꾸에지를 약물로 독살하고 의사로서의 영달을 꿈꾸지만 결국 비리가 탄로나고 죽게 된다. 또한 협동농장 출신으로 으스스대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부소대장 부이빈꼴이 보여주는 질투와 시기가 과장없이 드러나기도 하며 정치국원의 오만함과 허세에 가득 찬 태도를 통해 베트남군 내부의 관료주의의 폐해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은 환상적 기법으로 베트남전쟁의 상처를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다. 황천이라는 공간 설정은 한편으로 환상적 분위기를 자아내 현실감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 경험을 섬세하게 기억하게 하여 미군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민족해방전선의 내부 모순 역시 드러나게 함으로써 도이머이 이후의 모순을 담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가감없이 모순과 아픔을 드러냄으로써 이를 스스로 극복하고 치유하게 하는 공간의 의미를 땀으로써 이 소설의 주제의식을 대변하고 있는 장치이다. 소설은 인간적 관계의 소중함을 간직한 베트남 전통의 계승과 용서를 통한 인간애가 전쟁의 질곡과 상처를 극복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 절대로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목을 붙이지 못한 소설』²⁰⁾은 전장과 후방이 교체 서술되는 형식을 취하면서 일상적 삶의 공간이 전쟁의 공간이 되어버린 베트남전쟁의 특

20) 쓰영 투 후응, 한상희 옮김, 『제목을 붙이지 못한 소설』, 동방출판사, 1993.

정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곧 전후방이 따로 없이 20여 년간의 진행된 베트남 전쟁의 비극성과 인민해방전선 전사들의 모습이 섬세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서사의 중심에 있는 ‘나’는 관으로 10년 전투경험을 가진 28세의 중대장이다. 소설은 유약하고 평범한 인물인 관이 미쳤다는 어린 시절 고향 마을 친구 비엔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K지역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엥이라는 여전사의 도움을 받고, 할아버지와 동굴에서 살아가는 어린소녀의 간호를 받기도 하며, 고원지대 소수민족 청년 ‘떼 찌엥’의 도움을 받은 일 등이 순차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관의 여정에서 만남 사람들과의 경험은 전쟁을 피해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이미 전쟁은 일상이 되어버렸으며, 이를 이겨내기 위해 연대의식이 자연스럽게 샘솟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소설은 베트남전쟁의 원인을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관은 어느 날 ‘의무’와 ‘민족주주의의 이상’을 위해 참전했다고 강요당한 질문에 대답하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18세의 횡 호아이 안이라는 포로와 심문과 같은 대화를 통해 전쟁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멸을 토로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어우 꼬, 우리의 아버지 락 롱 관(베트남 민족 기원 설화), 우리가 태어난 공동 모태”(267쪽)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회의는 소설의 말미에도 지속된다. 관이 아끼던 부하 카는 미국 제 비타민 B12 시럽을 네 콘테이너나 노획해두고 중대장 관에게 들키게 된다. 하지만 그는 당당하고 “너는 인민의 재산을 약탈했어. 우리가 피로 지불한 모든 것은 인민에게 속한 거야.”(295쪽)라는 관의 추궁에 인민은 순간에만 존재하며 그림자이고 물소이며 병사이며,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는, 축제와 연회를 위해서 인민을 제단에 올려놓고 향과 재를 그들에게 올립니다.”(297쪽)이라는 말로 항변한다. 카의 행위는 17세 때의 경험과 기억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그의 가난한 어머니가 반식민지

항운동의 희생자를 위한 묘지조성을 위해 낸 천원짜리 지폐를 포함한 모금돈을 마을 촌장의 딸이 마구 써 대던 기억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토착지주세력에 대한 근원적 불신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관은 소설의 마지막 장인 20장에서 승전을 거둬들이며 전진하던 중 발견된 미포로를 살해하려는 부하를 만류하고, 승리에 도취한 부하들과는 달리 적막함을 느끼는 것이다.

전쟁의 폭력성과 죽음은 일상적이다. 소설의 서두인 1장에서는 여전사 6명의 시신이 살해되기 전 강간을 당했으며 가슴과 성기가 풀 숲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처참한 지경이다. 이를 시작으로 수많은 동료와 민간인들의 죽음이 증거되어 있다. 그 가운데 유골로 남은 한 청년의 죽음은 관이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것이다. 관은 길을 잃어 이틀 동안이나 계곡을 헤매다 유골이 된 청년을 찾게 되고 그 배낭에서 66세가 되신 어머니에 전해 달라는 쪽지를 발견하면서 그가 계곡을 헤매는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다.

결국 『제목을 붙이지 못한 소설』은 남·북베트남 모두가 민족을 내세우지만 결국 이념의 대립에 의한 것이 베트남전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이들은 하위주체로 존재하고 살아온 남·북베트남 민중들이었음을 웅변하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설에서 죽음은 일상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의 극복 또한 일상적인 인간적인 가치, 곧 연대와 사랑과 같은 것에서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3 살아 남은자의 슬픔과 기억하기

『전쟁의 슬픔』²¹⁾은 민족해방투쟁으로 불리는 베트남전쟁에서 베트남 인민들의英勇적 투쟁보다 고통스러운 전쟁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다. 승리한 전쟁에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늘지고 습한 곳, 부정적이

21) 바오 닌, 박찬규 옮김, 『전쟁의 슬픔』, 예담, 1999.

고 아픈 곳의 존재는 또 하나의 현실이며 극복해야하는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때문에 바오 닌은 동시대 작가에 비해 폭넓은 시각을 갖는데 곧 자신의 기억을 깊이 보는 것과 전쟁에서 잃은 것, 아픔 그러나 삶과 글 쓰기와 평화에의 갈망을 멀리 봄으로써 전쟁을 새롭게 본다는 점을 평가받고 있다.²²⁾

이 소설은 액자소설의 형식을 취하는 데 중심서사는 바깥에 작가인 바오 닌의 서술이 있고 안쪽에 소설가 끼엔의 시각이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쟁의 기억은 추억과 회상으로 처리되고, 과거와 현재가 작가와 인물의 생각, 느낌 등이 교체 서술되면서 전쟁의 비극성을 담지해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끼엔의 내면 묘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회상에 회상이 중첩되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인물의 의식이 혼란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서술기법은 종전 이후의 현실이 통일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공적담론이 횡행하지만 여전히 불확정적이고 민중들이 삶이 아물지 않은 생채기를 안고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로 기능한다.

끼엔은 종전 10여년이 지난 후 격렬한 전투가 치러진 고이혼에서 전사들의 유해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이혼(招魂)은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9년 제27여단 대부분의 병사들이 죽음을 당한 곳으로 괴기스러운 지역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과정에서 그의 기억은 전쟁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고 비연속적이고 단편적인 기억들이 뒤섞여 서술되는 바, 이는 아픔과 혼돈에 빠진 끼엔의 의식의 반영이다. 전우들과 민족을 위해 살신성인한 호아, 땀, 꾸앙 같은 인물이 있는 반면에 전쟁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탈영까지 감행하다 죽어간 칸과 같은 인물들의 모습 또한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끼엔은 고이혼에서 돌아온 후 현재시점에서 전쟁을 겪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헤집으며 그것을 글로 남기기 위해 온몸으로 그 혼돈을 다시

22) 호티롱안, 앞의 글, 285쪽 참조.

한 번 경험한다. 소설 속의 소설에서 끼엔은 베트남전쟁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비극적 사건을 재현해내고 전달하는 기록자이자 증언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그는 “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참고, 희망을 품고 열망을 지키기 위해”(187쪽) 글을 써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외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이유는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이며, 작가가 되어 전쟁의 기억을 쓰는 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한편으로는 끼엔과 첫사랑 프영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추억이 아련하게 전개된다. 국가의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적 사랑이 허용되지 않던 시절, 그들이 사랑은 전쟁에 짓밟히고 만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쓰디 쓴 추억과 전쟁의 잔인한 기억과 살아 남은자의 슬픔이다. 그럼에도 작가는 “전쟁이 나누어준 거대한 슬픔, 모든 행복과 고통의 피안에 서 있는 도도한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고 말하면서 전쟁에서 살아남고 평화를 회복한 일에 희망을 건다. 과거는 고통스러웠지만 젊고 순수하고 진실했던 시절이었음을 상기하면서 말이다.

『전쟁의 슬픔』은 살아남은 자의 소명의식이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고 기록해 전하는 일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라 믿는 작가의식의 소산이다. 이 과정에서 전쟁의 비극성과 폭력성이 가감없이 전달되며, 이를 통해 작가는 전쟁을 기억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 보인다. 그럼으로써 자본주의적 지배에 대한 민족해방전쟁이라는 거대서사의 담론에서 벗어나 개인의 비극적 기억으로 풀어간 이 소설은 베트남전쟁문학의 지향점이 궁극적으로 여전히 하위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낙오한 사람들의 아픔에 닿아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3. 한국 소설 속의 베트남전쟁 반영 양상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한미동맹을 미국과의 ‘동화’로 이해하거나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의 한 개발도상국이자 시장개척지로 인식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것이 1960-70년대에 베트남전쟁을 ‘반공성전’이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투쟁’이라는 공적담론이 특세한 이유이고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실정에서 한국문학에서 베트남전쟁 소재 문학을 살피는 일은 단순히 미군의 범죄행위와 한국군의 참전에 대해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금렵구와 무관심에 가려진 진실을 알려 공론화의 장을 형성함으로써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도이다. 과거에 대한 엄밀한 사유만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출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²³⁾

베트남전쟁을 소설을 쓴 작가들은 대부분 참전경험이 있거나 철저한 취재에 근거하여 작품을 쓴 이들이다.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여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항담론을 형성²⁴⁾함으로써 문학의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는 것이 증언소설의 의의임을 생각할 때, 베트남전쟁을 형상화한 소설은 베트남전쟁에 관한 보다 다양하고 온당한 시선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담론 현성에 기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베트남전쟁을 다룬 한국 소설을 대상으로 그 주제 구현양상에 따라

23) 릴라 간디, 이영옥 옮김,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1999, 22쪽. 그리고 한국군의 대(對)베트남 섬멸과정에서 주민학살사건에 대한 증언은 그 부대의 명칭과 부대장의 이름, 학살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되어 베트남 현지의 당국에 보관되어 있다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 1969년에 발간된 『Vietnames Studies』 22호는 “The Year 1968” 특집호는 일년동안의 전쟁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군 관련부분이 적지 않으며, 여기에는 한국군에 의한 주민학살 보고와 한국군 포로에 대한 기록, 장준하의 한국군 철수 요구가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한다. 전경수, 앞의 책 82쪽, 171-5쪽 참조.

24) 정찬영, 『한국 증언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0. 253쪽 참조.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피고자 한다.

3.1. 전쟁의 폭력성과 제국주의의 본질

황석영은 「탑」 「낙타누갈」 「물개월의 새」 등 초기 단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베트남전쟁에 대한 문학적 모색을 해 온 문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작 『무기의 그늘』²⁵⁾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황석영은 이 소설에서 1967년에 해병대 청룡부대 제2진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언하면서 베트남전쟁의 본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작가의 말」에서 “베트남 전쟁을 아시아 사람의 시각에서 다시 보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베트남 전쟁 소재 헐리우드 영화는 베트남전쟁의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자의 살육과 증오를 감상적인 귀환병의 고독과 그럴듯하게 섞은 끔찍한 오락물이며, 진실을 드러내야한다는 식으로 자기사회 내부에서 앞으로 척결해 나가야 할 문제의 초점을 애매모호하게 만든다고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를 작품에서는 베트남전쟁이 미국 자본주의의 식민주의적·제국주의적 의도의 표출이었음을 ‘무기’와 그 ‘그늘’을 통해 보여주고자 다낭시장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무기의 그늘』의 서사의 중심축에는 한국파병군인인 안영규와 베트남 해방전선 소속 팜민이 놓인다. 소설은 먼저 안영규를 통해 베트남전쟁의 폭력성을 여과없이 보여주면서 동시에 보여주면서 베트남전쟁에 관한 공적담론의 허구성을 통렬히 폭로하고 있다. 곧 이 전쟁이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며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파병은 정의의 십자군이었

25) 이 소설은 「난장(亂場)」이라는 제목으로 1977년 11월부터 1978년 7월까지 『한국 문학』에 연재되다가 「무기의 그늘」로 제목을 바꾸어 1983년 1월에서 1984년 3월까지 연재된 후, 『무기의 그늘 1』(형성사, 1985)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1987년 9월부터 1988년 3월까지 2부가 『월간조선』에 연재되었다가 1988년 『무기의 그늘』 하권이 출간됨으로써 완간된다. 이후 약간의 손질을 거쳐 창비사에서 1992년에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다는 공적담론으로서의 전쟁관은 실제의 죽음을 넘어서는 전투상황과 양민학살사건 등 범죄행위에 관한 여러 보고, 무기 실험, 일본의 경제적 이익 등을 보여줌으로써 명분을 위한 허구였음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설은 안영규의 시선에서 아시아인이라는 제3세계적 시각에서 베트남전쟁을 바라보고 있다. 곧 한국과 베트남의 제3세계적 유사성을 폭력의 배후에 자리한 인종문제에 대한 인식과 한국전쟁을 유년기에 체험한 세대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얻은 경험론적 시각을 통해 두 전쟁의 의미를 따져 물으면서 분단모순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안영규는 참전 6개월만에 다낭에 있는 합동수사대로 차출되어 무기 암거래를 밝히는 수사활동을 한다. 소설은 안영규의 시선으로 베트남 블랙마켓의 실체를 파악해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안영규의 추적을 통해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의도한 바가 암묵적 밀거래를 통한 전쟁물자의 소비와 그 이익을 통한 베트남의 식민지화였음이 드러난다. 곧 PX로 상징되는 미국의 거대자본이 어떻게 베트남인들이 일상생활에까지 깊숙이 개입하여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안영규의 시선은 미국의 기업가들과 그들의 세일즈맨인 정치인들이 전쟁책임자들임을 폭로하면서 베트남전쟁의 실체가 자본의 이익을 위한 명분없는 전쟁이며, 비극적이지만 냉엄한 현실임을 보여주는 데 닿아있다.

서사의 다른 한 축은 팜 민과 그 형인 팜 꾸옌의 시각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베트남인들의 전쟁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고자 한다. 민족해방전선의 팜민과 남베트남 정부 소속의 군인인 팜 꾸옌이 형제라는 사실은 베트남전쟁의 비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서사장치인 것이다. 소설은 형제가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형제애는 변함이 없음을 산발적으로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 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낙관을 배변에 깔고 있기도 하다.

민족해방전선의 관점은 후에 대학의 의예과 학생이다가 자원입대한 팜 민의 시각에서 제시된다. 이들은 미제국주의와 맞서는 민족주의 전쟁으로 베트남전쟁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한 정치장교의 입을 빌어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주의의 연합전선이 해방전선의 입장이며 전투력 강화를 위해 논리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말로 더욱 구체화되어 드러난다. 남베트남의 입장은 팜 꾸엔의 시각에서 전개된다. 월남 2군 사령부의 수완가 팜 꾸엔 소령은 민족해방전선에 뛰어든 팜 민의 형으로, 사이공 대학의 우수한 법률학도였다 지금은 남베트남 정부 소속의 군인으로 오직 돈을 많이 착복하여 외국으로 이민 갈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인물이다. 팜 꾸엔을 통해 소설은 베트남 민중의 삶을 억압한 미국의 이익에 기생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채운 남베트남군과 권력의 종착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쟁의 실체를 자본의 폭력성인 ‘무기의 그늘’에 두고 있는 작가의 분신인 안영규가 토이의 죽음에 분노하여 안영규가 팜 민을 사살하는 소설의 후반 장면은 베트남전쟁에서의 폭력성으로부터 한국군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서사전략으로 판단된다.²⁶⁾ 리영희가 “한국이 한국인에게 손가락질을 한 번 해본일이 없는 베트남인을 죽이기 위해서 연인원 수십만의 군대를 파병하게 된 계기와 배경을 아세요?”²⁷⁾ 라고 물으면서 베트남전쟁이 미국 자본주의의 식민주의적·제국주의적 의도를 일찍이 간파한 바를 『무기의 그늘』은 적확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무기의 그늘』은 베트남전쟁 소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작

26) 시어도어 휴즈는 안영규의 팜 민 사살은 베트남에서 남한이라는 국가가 보여준 하위제국주의의 궤적, 미국이 돈을 주고 산 남한의 군사기구의 반혁명적인 폭력을 예시한다고 이해한다. 시어도어 휴즈, 「혁명적 주체의 자리매김-『무기의 그늘』론», 최원식 외 엮음, 『황석영 문학세계』 창비, 2003. 240쪽.

27) 리영희 임현영 대담, 앞의 책, 344쪽.

품이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자본 폭력성이 외세의 개입에 의한 베트남 전쟁의 본질임을 말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분단상황과 세계인식의 수준을 가늠하고자 한다. 베트남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월감은 사실 그들의 가난과 전시에서의 경험이 만들어 낸 것이다. 『무기의 그늘』은 미국과 동일시하는 한국인들의 의식이 왜곡된 것이며 오히려 동질적 정체성을 베트남과 함께 느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폭력성을 사실적으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비판과 사실규명이 진정한 화해를 위한 발판이 된다는 믿음을 두고 있다. 베트남 전쟁을 비롯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 찾기는 공격담론의 사실을 부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곧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말하지 않은 진실이 많다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 관한 공격담론은 관변화한 언론을 통한 언론통제, 비판적 인사의 억압, 이데올로기로 교육을 포함한 일상을 지배하면서 관성적 삶의 종속을 강요한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과장되게 조성하여 자신들의 집권에 유리하도록 심리적 자극을 가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3.2. 인간성 파괴와 휴머니즘

안정효의 『하얀전쟁』²⁸⁾은 과거와 현재의 교체서술이라는 장치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베트남전쟁에 대한 문제해결이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다. 또한 영역 출판이 미국 내

28) 이 소설은 1985년 실천문학에 「전쟁과 도시」라는 제목으로 3회 연재되다가 1985년 말 출판된 것을 영역 출판 이후 약간 개작을 하여 『하얀전쟁』이란 제목으로 1989년 고려원에서 출판하였다. 이후 『하얀전쟁』 2부 ‘전쟁의 숲’과 3부 ‘에필로그를 위한 전쟁’이 1993년 출판되었다. 2부는 1부에서 윤명철 병장을 베트남으로 오인하고 대검으로 찢은 채무겸이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다 부대를 이탈하여 정글을 방황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3부는 한기주가 모범수로 석방된 이후 베트남과 참전군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25년 만에 다시 베트남을 찾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에서 호평을 받음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여세를 몰아 영화화함으로써 베트남전쟁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의 확대가 본격화된 작품이다. 작가는 “전쟁행위에 휘말린 인간의 모습을 내가 보았던 그대로 전하는 작업이 더 절실한 욕구”였음을 작가후기에 밝히고 있다. 이는 작품 속에서는 한기주의 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월남에 갔다왔다면 ‘돈 많이 벌었느냐?’고 묻기가 고작이더니, 이제는 그나마도 잊혀졌다. 그리고 그 잊혀진 사람들을 위해 시를 한 편 써서 내 나름대로의 자그마한 비를 세우고 싶었다.”(28쪽)라고도 진술되면서 창작동기가 베트남전쟁을 증언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얀전쟁』은 베트남전쟁의 상황과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이 교차 서술되면서 베트남 전쟁이 이미 지난 과거가 아니라 현재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은 과거의 전우였던 변진수에게서 전화가 오면서부터 잠복해 있던 월남에서 보냈던 11개월 26일의 전쟁경험을 기억해 내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서사는 한기주가 1966년 베트남에 파병되어 1년 동안 경험한 전쟁이 한 축이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 변진수를 만나면서 자신의 상처의 원인을 탐색하면서 변진수를 베트남에서부터 가져온 권총으로 죽이게 되는 이야기가 다른 한 축이다.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서사의 한 축은 한기주의 전쟁경험담이다. 과거 문학을 공부하면서 전쟁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던 한기주는 대학 졸업 후 파월 근무에 자원하고 1년의 베트남전쟁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것은 영웅다움도 정의감도 없는 단순한 생존의 전쟁터였고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냉혹한 적자생존의 정글이었다. 그와 함께 파병된 그의 동료들은 낮은 땅에서 전쟁을 통해 그들의 악마적 본성이 표출된다. 전쟁을 겪어감에 따라 그와 그의 동료들은 살인의 죄책감을 벗어남은 물론 동료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베트남을 망설임없이 사살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군대내의 도피처로 파월을 선택한 변진수는 이러한 주위의 변화에 처음부터 적응하

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변진수는 급기야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면서 한기주의 뇌리에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된다.

그리고 서사의 다른 한 축은 끝나지 않은 베트남전쟁이다. 1년의 베트남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한기주는 다른 전우들과는 연락을 끊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온다. 취직을 하고 결혼도 하고, 평범하지만 지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자책하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변진수가 찾아온다. 아직도 자신을 노리는 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고 믿는 변진수는 한기주와의 만남에서 목격한 서류봉투를 하나 맡기고 도망가듯이 사라진다.

한기주는 변진수를 보면서 그가 아직도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와 동시에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 역시 아직도 그 잃어버린 전쟁에 얽매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삶이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아내와의 서먹한 관계, 직장에서의 무능력, 대인관계에서의 무관심 등 그는 자신 역시 전쟁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로 인해 주위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던 중 아내는 결혼이후 지속된 그의 무관심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직장에서도 역시 그의 무능력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바라며 부하직원 하나 없는 한직으로 발령 낸다. 자신의 삶이 하나씩 어긋나고 있었음을 느끼게 된 한기주 앞에 변진수가 다시 나타나 맡겼던 물건을 되찾아 가겠다고 연락한다. 둘이 만난 공원에서 변진수는 자신은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고 있는 이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하며 한기주에게 맡겼던 권총으로 자신을 죽여줄 것을 요구하고 한기주는 거절한다. 그러나 힘없이 돌아서는 변진수를 바라보며 한기주는 왜 그가 그토록 죽음을 원하는지, 삶에 대한 자신과 변진수의 태도에서 아무런 차이점이 없었음을 느끼며 변진수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결국 변진수는 물론이고 한기주 역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두 인물의 비극의

원인인 것이다.²⁹⁾

『하얀전쟁』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폭력적 경험을 한국에서의 무기력한 삶과 병치시키면서 베트남 전쟁이 최소한 체험당사자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전쟁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전쟁과 한국전쟁의 유사성을 환기시키면서 한국전쟁 역시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전투상황의 충실한 묘사를 통해 베트남전쟁이 갖는 폭력성을 충실히 보여주면서, 아시아인으로서 명분없는 전쟁에 참전하여 고통스러운 체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물을 통해 베트남 전쟁의 의미를, 베트남 전쟁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살아남은 자의 아픔’으로 보여주고 있다.

3.3. 세대를 넘어선 기억의 연대와 소통

오현미의 『붉은 아오자이』는³⁰⁾ ‘라이 파이한’으로 불리는 한국계 베트남 혼혈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베트남전을 라이 파이한의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주의³¹⁾에 대한 모색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의 한 장을 보여주고 있다.³²⁾ 이런 개념은 추상적이거나 무

29) 한 신경정신과장의 증언에 의하면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중 5~10% 정도가 PTSD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시사저널>549호, 정문용 한국보훈병원 신경정신과장의 증언, 2000.5.4

30) 오현미, 『붉은 아오자이』, 열림카디널, 1995.

31) 가족주의는 가족적 인간관계를 가족외적 일반사회로 확대시켜 사회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 및 가치체계 등에 적용하여 통칭하는 것이다. (이효재, 『분단 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1985. 193쪽) 또한 문화인류학자 전경수는 가족주의는 동아시아 4국에서 가장중심적인 문화이해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베트남을 동남아시아문화권이 아니라 유교문화권에 속한 곳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전경수, 『베트남일기』, 통나무, 1993. 36쪽 참조

32) 물론 현실에서 가족의 이산과 갈등 화해는 보편성을 띠는 소재이기 때문에 가족소설로도 읽힐 수 있는 요소가 없지 않지만, 연구자는 한·베트남의 특수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가족주의는 가족간의 정서적 결합을 기초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바탕이 되며, 한국과 베트남의 생채기를 보듬는 중요한 방향중 하나라는 판단이다. 이는 이효재가 말한 ‘인간에적 가족주의’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효재, 앞의 책, 202쪽.

의미한 개념이 아니라 현실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개념이 될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가족주의는 유교적 전통에 따른 유사성이 많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역시 가족의 변화와 세대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³³⁾

총 3부로 구성된 이 소설은 1부에서는 라이 파이한 단홍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연수를 떠나기까지를 다루고 있으면서 라이 파이한들이 겪는 정치·경제적 문제점들과 베트남의 현실에 대한 고찰과 취재들이 등장한다. 여기서는 이야기를 끌어가는 민목사의 시선에서 베트남 사회의 모순이나 라이 파이한 문제들을 가치있게 다루고 있다. 민목사는 라이 파이한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가장 한국말을 잘하고 영리한 단홍은 한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민 목사에서 베트남 관리가 찾아와 학교에서 인원은 선발하여 한국에서 1년간 파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얘기한다. 민 목사는 단홍을 선발하지만 단홍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주위 사람들의 권유와 한국에 가서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어머니 마이의 간곡한 부탁으로 단홍은 한국행을 결심한다. 마이는 한국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건네주라며 반지와 아오자이를 단홍에게 준다.

2부의 내용은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인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마이의 남편이자 단홍의 아버지인 송기준은 베트남에서의 일을 비밀에 붙인 채 한국에서 부유한 사업가로 자리잡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는 라이 파이한들이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보고 과거에 대한 회한에 잠긴다. 단홍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던 중 마이의 죽음을 전해 듣고 슬픔 속에 베트남으로 가서 장례를 치른다. 마이의 마지막 편지에 담긴 호소를 읽은 단홍은 마침내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를 찾기로 결심한다.

3부에서는 단홍으로 인해 벌어지는 기준의 가정불화가 주로 그려지면

33) 전경수, 앞의 책, 91쪽 참조.

서 화해와 단홍의 베트남행으로 그려진다. 송기준은 단홍을 만나 '용서를 구한다. 그의 가정은 혼란과 갈등을 겪지만 마침내 이해하고 예정되었던 직업교육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단홍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베트남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 공항에서 이제까지 단홍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송기준의 아내 현숙까지 나타나 마음을 열려고 하는 모습을 암시하며 소설은 끝이 난다.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 파이한 소녀가 한국을 방문해 아버지를 찾아 만나고 화해하는 과정을 그린 『붉은 아오자이』는 베트남전의 끝나지 않은 의미와 그곳에서 파생된 개인의 아픔을 짚어보는 작품으로 현재 한국소설이 갖고 있는 베트남인식에 대한 접근 중 하나라 할 것이다. 또한 유교문화권의 경험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족주의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1994년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을 시작해 회장을 맡은 바 있는 방현석의 중편소설 「랍스타를 먹는시간」³⁴⁾은 베트남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베트남인들의 아픈 기억과 속마음을 이해하고 어루만지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현재 베트남이라는 시공간에서 베트남전쟁의 상처와 영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베트남인들과 노동현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한국인의 모습을 교차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 및 한·베트남의 민중연대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의 중심축은 베트남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인 건식을 중심으로 두 축이 구성되어 있다. 그 한 축은 조선소 현장에서 베트남인과의 갈등을 통해 점차 그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다루어진다. 한국관리자들과 현지 직원들 사이의 다툼이 커져 과거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이었던 김부장이 공안국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백 달러짜리 몇 장으로 해결될 일임

34) 방현석, 『랍스타를 먹는시간』, 창비, 2003.

에도 공안국에서 ‘베트콩’이라는 말을 남발하는 김부장 때문에 사건이 점점 커진다. 그의 이런 행동은 베트남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 번지고, 한국어를 몰라 생긴 오해라며 상황을 무마시키려는 건석에게 사복을 입은 공안이 유창한 조선어를 사용하며 이제까지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제시한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조선소에서 많은 지원을 받던 인민위원회의 국장에게 연락을 하지만 윗선이 개입된 문제라며 끝내 공안국에 모든 문제를 일임해버리자 건석은 김부장과 대판거리를 한 ‘보 반 러이’라는 자가 당원인지를 묻고, 국장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대답만 남긴다. 보 반 러이는 과거 인빈해방전선의 용사로 서른 두개의 파편이 몸 속에 박혀 금속탐지기를 통과하지 못하던 조선소의 노동자였다.

조선소 소장과 인민위원회 주석의 담판으로 김부장은 주의 처분을 받고 풀려난다. 그러나 보 반 러이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자 한국인 관리자들이 반발하고 결국 싸움이 일어난 회식 자리에 있던 37명의 현지 직원들은 전보발령을 받게 된다. 전보 발령 본문을 베트남어로 작성하는 일을 맡게 된 건석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어 망설인다. 37명의 전보 발령을 낸 사흘 후 보 반 러이가 건석에게 사표를 제출한다. 전보 발령 공문을 건석이 썼다고 오해한 보 반 러이는 건석에게 경고를 하고, 건석은 한국인과 베트남 인 사이에 존재하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외로움을 느낀다.

우옌 티 리엔이 권한 『전쟁일기』를 읽으며 소일을 하던 중 김부장의 전화를 받고 나간 자리에서 건석은 보 반 러이와 오부장, 김부장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본다. 오부장과 김부장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보 반 러이는 사표 제출을 고수하고 김부장은 보 반 러이의 밥줄을 끊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진다. 보 반 러이의 사표제출이 퇴출로 오해되면서 사복 경찰인 팜 반 쑤은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사건의 매듭을 풀기 위해 건석은 팜 반 쑤과 함께 보 반 러이의 고향을 찾게 된다. 건석이 도착한 날은 마침 마을에 합동 제사가 있는

날이었다. 베트남 전쟁이 있던 당시 한국인들에게 마을 사람 전체가 몰살을 당하고,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훼손된 상황에서 보 반 리이는 월맹군이, 팜 반 꾸은 국비유학생이 되어 베트남 해방 전쟁에 몸담게 된다. 보 반 리이의 지나온 세월을 전해들은 건석은 보 반 리이에게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고, 보 반 리이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대답한 뒤 끝까지 조선소로 돌아가지 않는다. 자신과 선의의 경쟁이라도 하듯 해방 전선의 부대장으로서 앞장서 일을 맡다가 결국 보 반 리이를 대신해 전쟁 중에 실종되고 말았던 ‘이니’라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였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과 인빈해방전선군으로 대립했던 김부장과 보 반 리이는 과거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패권과 여기에 대항하는 베트남 민족주의 노선의 대립이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횡행하는 현재에도 여전한 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서사의 다른 한 축은 건석의 형에 대한 회상으로 드러난다. 그의 형은 베트남 여인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 타이한이었다. 어린 시절 쪼보라고 놀림을 받던 형은 건석의 목인 아래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어 억지로 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져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다. 건석은 형이 병원에서 퇴원해 오던 날을 떠올린다. 형이 스스로 올라간 것이라는 건석의 거짓말에 동조를 하며 형은 눈물을 흘렸었다. 그런 그의 형은 대기업 공장에 취직하여 건석의 학비와 생계를 책임지다 자신의 이름을 비겁하게 만들지 않겠다며 노조활동에 몸담았다가 어이없는 죽음을 맞았다. D중공업 노조 파업 현장에서 청력이 약한 형은 미처 대피 명령을 듣지 못하고 질식해 숨지고 말았던 것이다.

형에 대한 죄책감은 건석이 베트남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베트남 노동자들과의 연대의식을 느끼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곧 자본주의적 세계질서의 재편 속에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립 속에서 희생되었던 하위주체인 노동자들은 지금의 자본주

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국제 노동자 연대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과의 소통과 연대를 강조하는 부분은 건석이 연인관계인 우옌 티 리옌에게 청혼을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리옌의 외삼촌이면서 가난하더라도 책임있는 나라로서 행동해야한다는 말을 하는 팜 반 꾸이 『전쟁일기』에 나오는 ‘호치민 장학생’으로 베트남전쟁기에 북한에서 유학하여 전쟁 이후를 준비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통일 베트남의 현재와 미래가 과거와의 연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랍스타를 먹는시간」은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의 노동현실이 거대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역사적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해 온 과정임을 암시하면서 궁극적으로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하위주체인 노동자들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민중 연대성을 꿈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대환의 『슬로우 불릿』³⁵⁾은 『하얀전쟁』, 『랍스타를 먹는 시간』 등과 같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거시점과 이 사건을 회고하는 현재시점을 교체하는 서술방식을 취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다.

Slow Bullet은 느린 총알이라는 뜻으로, 미국에서는 고엽제³⁶⁾ 후유증

35) 이대환, 『슬로우 불릿』, 실천문학사, 2001. 그리고 동명의 사나리오가 방현석에 의해 발표되기도 한다. 방현석, 『슬로우 불릿』, 화남, 2004. 사나리오는 농고출신 이등병 신형우를 통해 고엽제를 둘러싼 한국군과 베트남군의 투쟁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전투에는 승리하지만 결국 슬로우 불릿의 피해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하는 베트남전쟁의 비극적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

36) 다이옥신. 일명 ‘에이전트 오렌지’로 불리는 이 물질은 원래 농사에 사용하기 위해 미국의 한 화학약품제조회사가 개발한 고엽제枯葉劑의 일종이다. 독극물로 알려진 비소보다 3천배 이상의 독성을 지녔으며 인체에 들어간 뒤 5~10년이 지나면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를 가져오는 발암물질이다. 독성 때문에 사용이 금지됐던 에이전트 오렌지가 고엽제로 사용된 곳은 베트남. 베트남이 은신처로 이용하는 밀림을 초토화하기 위해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미국이 쏟아 부은 에

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베트남전쟁에서 정글이 베트콩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은 정글을 제거하기 않고는 전투를 수행할 수 없었고, 지상군의 전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미군은 고엽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소설은 참전군이이면서 고엽제 살포임무를 맡았던 김익수와 그의 가족인 아내 권숙희, 그리고 그들의 아들 영호와 영섭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김익수는 베트남에서 박대위의 선택을 받고 고엽제를 살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는 탁월한 손재주로 ‘낙엽 살초제’ ‘에이전트 오렌지’ ‘씨에스파우더’와 같은 고엽제를 헬기에서 남베트남에 살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제대 말기, 그의 능력을 아까워하는 박대위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는 숙희가 있는 남한의 귀국한다.

그의 고향은 한반도 호랑이 꼬리인 호미곶.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그곳에서 숙희와 신혼살림을 차린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익수의 병이 드러남에 따라 기억으로 사라진다. 익수는 독극물인 고엽제를 방독면 하나만 쓰고 작업을 했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의례 온몸에 열이 오르고 따가운 상태가 됐다. 찬 샤워를 하고 바람을 쐬면 금방 가라앉는 병을 익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귀국 후 몇년 후에 그는 이길 수 없는 병마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익수의 불행은 자신만으로 끝나지 않는데 더 큰 비극이 있다. 큰아들 영호는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을 하지만 하반신 마비가 오게 말고, 둘째 영섭은 허벅지 안쪽에 생긴 습진으로 늘 고통받는다.

발작과 각혈을 반복하는 익수는 매년 빠꾸기 올 때만 우연히도 실신하여 엠블을 타는 일이 반복된다. 빠꾸기를 원망하기도 하고, 미물을 원망하는 자신을 원망하기도 한다. 영호는 하반신 마비 이후, 모든 관계를 끊고 기도원에 들어간다. 어느날 기도원에서 집에 돌아온 역호는 익수와 숙희 속을 뒤집을 행동만 한다. 모든 것을 달관한 것처럼 웃기만 하고,

이전트 오렌지는 약 4만 드럼을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전 참전을 비꼬는 질문을 던지고, 작심한 것처럼 냉소한다. 그런 아들에게 익수는 말 못할 서운함과 미안함과 걱정을 한다. 영호가 기도원에서 돌아오기 전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취재하러 온 TV기자들에게 숙희는 남편을 밥벌레라고 표현한 것을 가슴 아파하고, 영문도 모르게 후유증 2세가 되버린 영호는 집을 나간다. 한 때는 남다른 손재주로 목수일을 하던 익수는 새벽에 아내가 깰까봐 깡마른 몸을 움직이며 관절 소리가 나지 않게 무릎을 움켜쥐며 집 뒤에 나가 소변을 본다. 영호가 돌아온 며칠 후, 익수는 또 진득한 핏덩이를 한 요강 쏟아내고 실신하고 만다. 숙희는 가슴 시리게 침착하게 택시를 부르고 대문 옆에 쪼그려 앉아 택시를 기다린다. 아들 영호는 그 상황에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방에만 누워 있다. 숙희가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전화 한다고 전화기를 영호 곁에 두고 택시를 탄다. 새벽에 혼자 남은 영호는 방에 엎드려서 왼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하고 만다.

『슬로우 불릿』은 베트남전쟁이 종전은 되었지만 이후에도 남아있는 고엽제피해자의 현실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베트남전쟁 종전 후 20여 년 동안 철저히 숨겨져 왔던 고엽제의 부작용과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참전용사들의 아우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상 후유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나아가 전쟁은 피아 구분없이 많은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새삼 깨우쳐주고 있기도 한다.

4. 베트남전쟁 소설의 특성과 의의

1975년 베트남전쟁 종전 이후 한국과 베트남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각각 다른 길을 걸어오며, 1992년 한·베트남 수교 이후 같은 오늘을 살고자 한다. 열린 민족주의 및 국가주의에 바탕한 아시아공동체가

필요한 지점이다. 여기에 비교문학의 장을 넓혀 문학공간의 아시아화 내지는 세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베트남전쟁 소재 한·베트남 문학에 대한 연구의 의의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기억의 역사이며 이는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 이는 기억행위가 사회적 요인에 크게 영향 받으며, 사회적 결과를 낳고, 개인들에 의해 공유되면서 집합기억이 형태로 존재하며, 매체를 통해 생산·유통·분배·소비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지배적 기억의 공식역사와 대항기억의 도전으로 이루어지는 기억의 싸움이기도 하다.³⁷⁾베트남전쟁과 관련한 기억 역시 사회적이며 투쟁적이다. 이점에서 베트남전쟁을 다루는 소설은 대중의 과편화된 기억을 바탕으로 기억의 전체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이며 역사의 새로움을 더하려는 사회적 시도의 산물이다.

또한 종전 17년이 지난 후 이루어진 1992년의 한·베트남 수교는 ‘제2의 월남특수’라는 용어를 낳았다. 두 말할 나위 없이 ‘월남특수’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이 경제적 이익을 보았던 상황인데 한국은 베트남을 알지 못했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돈벌이의 공간으로만 베트남을 인식하고 전쟁을 바라보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관점에 기인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아직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다.

과거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이 무엇인지, 한국군은 어떤 일들을 하였으며 한국 기업과 기술자들은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베트남인들의 기억 속에 한국군과 한국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보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에 관한 문학적, 문화적, 사회과학적 담론은 일차적으로 베트남 전쟁기간동안 유명을 달리한 모든 이들의 신원(伸冤)을 행하는 일이며, 아직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무(慰撫)하

37) 나간채, 「5·18항쟁의 기억과 증언」, 정근식 외,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2006. 17-8쪽.

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은 베트남전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벌었지만, 전후 경제건설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베트남에 대한 원조와 전후 복구계획에 깊숙이 참여한 사실은 우리의 일정한 반성을 촉구한다 하겠다.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과 응웬반봉의 『하얀 아오자이』, 그리고 찬딘 반의 『불멸의 불꽃으로 살아』는 베트남전쟁을 미제국주의에 대항한 민족해방투쟁의 관점에서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따라서 소설은 시간 순서대로 자본주의적 침략의 실체를 보여주거나 투쟁의 모습이 여과없이 재현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무기의 그늘』이 미국적 자본주의의 폭력성이 베트남 전쟁의 본질임을 드러내고 있고, 『하얀 아오자이』와 『불멸의 불꽃으로 살아』가 민족해방투쟁의 선명성과 숭고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재현의 서사에 충실하면서 제국주의의 본질을 폭로하고 민족과 민중의식을 고취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안정효의 『하얀전쟁』과 바오닌의 『전쟁의 슬픔』은 살아남은 자의 소명의식은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고 기록해 전하는 일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소설이다. 이는 자연스레 과거와 현재를 병치하는 교체 서술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베트남전쟁에 대한 현재의 인식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곧 두 소설은 인물의 트라우마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징후를 통해 추적하면서 여전히 하위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아픔이 드러나도록 하여 전쟁의 비극성과 현재성을 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대환의 『슬로우 불릿』 역시 베트남전쟁 종전 이후에도 남아있는 고엽제피해자와 다음 세대에까지 피해가 전승되는 실상을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전쟁의 아픔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증언하고 있다. 썩어 투 후웅 『제목을 붙이지 못한 소설』은 이념 대립에 의한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한 남·북베트남 민중들을 기억하면서 살아남은 하위주체들의 아픔이 여전히 짐정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방현석의 「랍스타를 먹는시간」과 오현미의 『붉은 아오자이』, 반레의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은 각기의 방식으로 베트남전쟁의 상처를 보듬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있다. 「랍스타를 먹는시간」은 한국이 베트남을 이해하는 방식의 반성적 성찰과 거대자본주의 현실에 대항하는 한·베트남 민중 연대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고, 『붉은 아오자이』는 두 국가가 중시하는 가족주의를 통해 라이 타이한 문제를 보듬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내세우고 있고,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은 베트남의 전통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인간애만이 전쟁의 질곡과 상처를 극복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베트남전쟁 소재 한·베트남 소설들은 먼저 대중들에게 공적담론으로만 전해지거나, 헐리웃 전쟁영화의 오락성으로만 기억되는 베트남전쟁의 기억에 균열을 가하여 다른 역사의 관점과 단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는 대개의 소설들이 공적담론이 주도하고 만들어낸 공적기억과 역사의 박물관에 봉인된 과거를 개인의 시선에서 일정부분 균열을 가함으로써 현재진행의 역사임을 역동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담론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이 반영된 한국과 베트남 문학에 대한 연구는 공동의 문학을 만들어가기 위한 공유과정이다. 곧 역사적 경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갈등이 아직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현재의 공감을 확대하여 소통의 진정성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 지역적 기반에 착근한 공동의 연대가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확산된 담론은 전지구적 자본주의라는 동일한 경험체에서 국민문학적 특성을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베트남 전쟁문학을 연구하고 담론화하는 지향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자료>

- 박정환, 『느시』 1.2, 문예당, 2000.
방현석, 『슬로우 불릿』, 화남, 2004.
방현석, 『랩스타를 먹는시간』, 창비, 2003.
안정효, 『하얀전쟁』, 고려원, 1989.
오현미, 『붉은 아오자이』, 열림카디널, 1995.
이대환, 『슬로우 불릿』, 실천문학사, 2001.
황석영, 『무기의 그늘』 상하, 형성사, 1985, 1988.
바오 닌, 박찬규 옮김, 『전쟁의 슬픔』, 예담, 1999.
반레, 하재홍 옮김,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 실천문학사, 2002.
응웬반봉, 배양수 옮김, 『하얀 아오자이』, 동녘, 2006.
쯔엉 투 후응, 한상희 옮김, 『제목을 붙이지 못한 소설』, 동방출판사, 1993.
찬딘반, 김민철 옮김, 『불멸의 불꽃으로 살아』 친구, 1988.

<논저>

- 고명철, 「베트남전쟁소설의 형상화에 대한 문제」, 현대소설연구19, 2003, 291-312쪽.
김종윤, 「전쟁문학에 나타나는 전장체험 연구」, 육사논문집54, 육군사관학교, 1998, 21-54쪽.
김택현, 『서발턴과 역사학 비판』, 박종철출판사, 2003.
김해련, 「황석영의 베트남전쟁소설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02.
나간채, 「5·18항쟁의 기억과 증언」, 정근식 외,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2006, 13-42쪽.

- 리영희 임현영 대담, 『대화』, 한길사, 2005.
- 박태균,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역사비평80, 2007가을, 288-311쪽.
- 방현석, 『하노이에 별이 뜨다』, 해냄, 2002.
- 서은주, 「한국소설 속의 월남전-집단광기의 역사, 그 고통의 담론」, 역사비평30, 1995.가을, 214-225쪽.
- 송승철, 「베트남전쟁 소설론 : 용병의 교훈」, 창작과비평80, 1993 여름, 77-94쪽.
- 시사저널 549호, 정문용 한국보훈병원 신경정신과장의 증언, 2000.5.4.
- 이 경, 「전쟁소설의 새로운 가능성;하얀전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14, 1993, 383-406쪽.
- 이 훈, 「베트남 작가의 베트남전쟁소설에 대하여」, 한국베트남학회6, 2005. 99-113쪽.
-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1985.
- 장윤미, 「월남전을 소재로 한 한국 소설의 고찰」, 동남아시아연구19, 2009, 113-148쪽.
- 전경수, 『베트남일기』, 통나무, 1993.
- 정종현, 「베트남전 소설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1997.
- 정찬영, 『한국 증언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0.
- 정찬영, 「베트남 전쟁의 소설적 공론화-『하얀전쟁』을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39, 2002, 209-225쪽.
- 정찬영, 「사실의 재현과 기억, 연대를 위한 조건-『무기의 그늘』론」, 현대문학이론연구35, 2008, 187-213쪽.
- 정호웅, 「베트남 민족해방투쟁의 안과 밖-무기의 그늘론」, 외국문학22, 1989, 162-176쪽.
- 지현희, 「한-베 베트남전쟁 소설 비교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07.
- 최원식, 「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쟁」,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창작과비평사, 1997, 377-390쪽.

뉘옌 티 타오, 「한·베트남 전쟁소설에 나타난 인물형상 비교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6.

릴라 간디, 이영옥 옮김,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1999.

시어도어 휴즈, 「혁명적 주체의 자리매김-『무기의 그늘』론」, 최원식 외 엮음, 『황석영 문학세계』 창비, 2003, 275-304쪽.

호티롱안, 「‘하얀전쟁’과 ‘전쟁의 슬픔’ 비교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2002.

호티롱안, 「베트남전쟁과 베트남의 기억」, 김귀옥 외, 『동아시아의 전쟁과 사회』, 한울, 2009, 275-303쪽.

<Abstract>

Studies on Relations of Korean & Vietnam Novels and the Vietnam War

Jung, Chan-Young

This thesis is about the Vietnam novels and the Korean ones on the Vietnam War that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by their themes.

First, there are novels that describe the nature and conflict of the wars through representative narratives from a viewpoint of the gigantic discourses such as the Capitalism and Nationalism which have the characteristics of Imperialism. They are Hwang Sokyoung's "The Shadow of The Arms", Nguyen Van Bong' "Ao Trang" and Chandin Van's "With the Imperishable flames".

The Second group includes novels which portray individuals who don't free from damages of a defoliant and traumas of the war in the society with the alternative narration and recollections. In this group, there are An Jonghyo's "The White War", Bao Ninh's "The Sorrow of War", Lee Daehwan's "Slow Bullet" and Duong Thu Huong's "The Novel That Has No Title".

In the last group, there are novels that are trying to cure and overcome the tragedies and the scars of the Vietnam War with the present viewpoint in the Vietnam society. They are Bang Hyunsok's "the time to eat Lobsters", Oh Hyunmi's "Red Ao Trang", Van Le's "If You are Still Alive" and so on.

This study on the Korean and Vietnam novels about the Vietnam War is able 1) to provide us with the self-examination upon the realities and tragedies of the war which the public discourses don't, 2) to do much toward the activation of those discourses by showing the scars of the War and the efforts to overcome them and saying to the people that they are a ongoing history, 3) to be able to make a future-oriented rel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by arranging the genuine communication through them, and 4) to move toward the universalization of our national literary characters through the same experience of all global Capitalism.

Key Words : The Vietnam War, public discourse, nationalism,
Imperialism, subaltern, representative narrative,
alternative narratives

■ 논문접수 : 2011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1년 8월 5일

■ 게재 확정 : 2011년 8월 10일